

선도화학, 새출발 의지 다진다!

모기업 소유 건물로 사옥이전 ... 직원들 “하자” 분위기 충만

선도화학이 모기업인 풍국주정 소유의 건물로 사옥을 이전해 이전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03년 탄산가스 시장은 조선·자동차 용접용 등의 공업용 수요를 이끌만한 요인이 없었고 태풍, 초여름의 잦은 비로 음료수용 탄산가스 수요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도화학 역시 이로 인해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해 매출액 감소를 나타냈지만 영업외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며 한 해를 마감했다.

특히, 항공기용으로 판매되는 Nugget형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도화학 경영실적

(단위: 100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매출액	13,776	14,883	14,130
영업이익	2,388	3,788	2,823
경상이익	2,096	3,064	2,744
당기순이익	1,775	2,095	2,228

선도화학은 1996년에 설립돼 석유정제 과정 및 주정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료 가스를 이용해 고순도의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5/07>